

후면에 4개 카메라... 1억800만 화소 '인덕션 디자인'

(갤럭시S20 울트라)

삼성 '갤럭시S20 시리즈' 내달 공개

세가지 모델 모두 5G 출시 전망
갤노트10 처럼 화면 상단에 구멍

천체망원경서 코드명 '허블' 지어
10배 광학줌, 100배 디지털줌 지원

제품가격 약 92만원~127만원
내달 11일 공개, 3월6일 출시 유력

다음달 공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에 대한 정보가 속속 드러나면서 예상 스펙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갤럭시 라인업은 ▲갤럭시S20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울트라 세 가지 모델로 등장할 전망이다. 세 모델 모두 5G로 출시하면서 5G 단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0 시리즈는 ▲갤럭시S10e

〈갤럭시S20 시리즈 예상 스펙〉

구분	갤럭시S20 5G	갤럭시S20+ 5G	갤럭시S20 울트라 5G
디스플레이	6.2인치플랫디스플레이	6.7인치엣지디스플레이	6.9인치엣지디스플레이
무게	164g	188g	221g
배터리	4000mAh	4500mAh	5000mAh
후면 카메라	1200만화소 메인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카메라 6400만화소 망원카메라 (3배 광학줌, 30배 디지털줌)	1200만화소 메인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카메라 6400만화소 망원카메라 (3배 광학줌, 30배 디지털줌) ToF 카메라	1억800만화소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카메라 4800만화소 망원카메라 (10배 광학줌, 100배 디지털줌) ToF 카메라
전면 카메라	1000만화소	1000만화소	4000만화소
저장공간	128GB	128GB	128GB/512GB
램	12GB	12GB	16GB
가격	약 92만원	약 112만원	약 127만원

▲갤럭시S10 ▲갤럭시S10+로 출시된 이전 모델과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카메라 성능이다. 갤럭시S20 시리즈는 천체망원경의 이름을 딴 코드명 '허블'에 맞춰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에는 후면에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며, 1억800만 화

소의 메인 카메라를 장착된다. 망원카메라는 10배 광학줌 기능과 함께 최대 100배의 디지털줌을 지원할 것이라 예측이다. 화면 크기는 6.9인치로 세 모델 중 가장 크다. 갤럭시S20 화면 크기가 6.2인치로 가장 작고, 플러스의 화면 크기는 6.7인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모델 모두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부 저장 용량은 갤럭시S20과 플러스는 128GB, 울트라는 128GB+512GB

로 출시된다.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공통으로 탑재된다.

또한 세 모델 모두 120Hz의 주사율을 제공한다. 주사율은 초당 보여주는 화면 개수로, 주사율이 높을수록 영상이 매끄럽게 보여준다. 다만 주사율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설정을 통해 주사율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모습은 세 모델 모두 상단의 중앙

카메라 구멍을 제외한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하위 모델인 갤럭시S20은 평평한 화면의 플랫 디스플레이를, 나머지 두 모델은 화면의 양 옆이 휘어지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

뒷모습을 보면 후면카메라는 사각형 모듈 형태로 위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애플이 '아이폰11'에 처음 적용해 초기에는 인덕션 디자인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스마트폰 디자인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가격은 갤럭시S20이 799달러(약92만원), 갤럭시S20+가 999달러(115만원), 갤럭시S20 울트라가 1099달러(127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를 통해 신제품을 공개하며, 출시일은 3월 6일이 유력하다. 연례에서는 갤럭시S20 시리즈 외에도 폴더블 폰 신제품 '갤럭시Z 플립'과 무선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금감원, 제2의 DLF사태 차단 총력전

고위험 금융상품 등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제2의 과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싹틔현상도 살펴본다.

연간 전체 검사횟수는 줄지만 종합검사는 작년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DLF를 비롯해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영업 전 과정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신종펀드나 판매 급증 펀드의 경우 편입 자산이나 운용 전략이 적정인지 검사한다.

보험상품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근 판매가 늘

어난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비롯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안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선다. 불합리한 영업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과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와 함께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이나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차관회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확산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조선 구조조정 마무리... 해외진출 69조 지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여부가 오는 5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인수합병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EU) 승인여부가 중요해 오는 5월 7일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행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총 6개 국가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EU·중국·일본·싱가포르·카자흐스탄이다. 이 중 한 곳만 합병을 불허해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불발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카자흐스탄만 합병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신년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방 행장은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해서 경영상황이 좋아지고 자금회수 가능성도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금년 중 조선산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우조선 을 비롯해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날 방 행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은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한 69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성장 8조5000억원, 소재부품장비 20조원, 중소·중견기업에 28조1000억원, 해외인프라에 12조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특히 해외 수주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핵심 전략국과 산업개발을 강화한다. 단순 도급형 사업수주에서 벗어나 국내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주를 지원한다. 스마트 시티, 공항·항만 등 신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사업단계별로 최적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방 행장은 “지난해 유가하락, 이라크 지역의 치안불안, 경제불안 등이 겹치면서 건설 경기가 건설 수주액이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LNG플랜트 사업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비수도권 3곳 선정 1080억원 지원

교육부, 지역혁신 기본계획 발표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 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이 될 전망이다.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기르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

토록 지원하는게 골자다.

'대학의 혁신'을 '지역의 혁신'으로 있다는 구상이다.

올해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해 국고 1080억원과 총사업비의 30% 대응투자를 통한 지방비가 투입된다.

참여 주체는 지자체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나,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도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 대학, 역량강화대학,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교육부대학기본역량진단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한용수 기자 hys@